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의 읽기교과서 내용분석 생태학적 체계에 따른 가치덕목의 비교*

Content Analysis of the Reading Textbooks of Chinese-Korean and
Korean Children: Ecological Systems and Values

박 혜 원**

Hyewon Park Choi

원 영 미***

YoungMee Won

이 귀 옥****

Kwee-ok Lee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reading textbooks of Chinese-Korean 1st, 4th, and 7th graders in Yanji, China with reference to ecological systems and values. Results showed that the literature genre of Korean textbooks in China was predominantly novels/stories(38.5%) rather than essays(13.7%), poems/verses/rhymes(16.2%) or others(31.6%). Characters were classified into 9 categories and analyzed by Bronfenbrenner's ecological paradigm. It was found that Chinese-Korean textbooks included more characters belonging to exo- or macro-systems including school, community, and government while Korean textbooks emphasized the self or the family, both belonging to the micro-system. Values in Chinese-Korean textbooks emphasized community and government. Korean textbooks emphasized individual life. Differences were more pronounced in textbooks of the upper grades.

Key Words : 중국 조선족(Chinese-Korean), 읽기교과서(reading textbooks), 생태학적 체계(ecological systems), 가치덕목(values)

※ 접수 2003년 4월 30일, 채택 2003년 6월 27일

* 이 논문은 200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HM2501).

** 교신저자 :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 전공, E-mail : hyewonc@mail.ulsan.ac.kr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교수

I. 서론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 거주하면서도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정책 하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존하면서 한민족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 특히 연변 조선족은 세계적으로도 타 국가 내에서 민족 고유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사회로서는 매우 보기 드문, 거대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중국의 개혁화, 개방화 정책의 영향으로 이러한 언어, 문화적 특수성 유지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조선족 내부에서도 이주와 출산을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로 조선족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주류(한족) 문화로 동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족 학자들과 국내 학자들(강보유, 1999; 강영덕, 1999; 김강일, 1994; 박금혜, 2000; 박영순, 1990; 박태수, 2002; 박태형, 1995; 원영미, 1985; 이덕춘, 1999; 1987; 이종목, 1999; 임채완, 김경학, 2002;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 1993; 최우길, 1998; 최기호, 1990; 허청선, 이광호, 1995)이 조선족의 민족 전통 및 민족 문화유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는 조선족의 교육 및 언어교육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모국어 교육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선족은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모국어인 조선어를 제 1 언어로, 중국어인 한어를 제 2 언어로 하는 이중언어정책을 고수하여 왔으며, 이것은 1988년 제정된 연변조선족 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 자치주조례 및 교육조례를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소학교부터 조선족 학교보다는 한족 학교로의 취학을 선호하는 조선족 부모들이 점

차 증가하고 있고, 조선족 유치원에서도 중국어로만 수업하는 한어반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조선족 청소년사이에서도 모국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용수준이 낮아지고 있어 조선족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모국어 교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비단 언어의 소실뿐 아니라 조선족 아동의 가치덕목과 민족 정체감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McClelland(1961)는 학령기동안 교과서에서 강조한 가치덕목이 후일 그 아동이 성장하여 활동하는 미래의 사회 특성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그는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민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성취내용을 다룬 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과거 30년 전 교과서에서 성취(achievement)를 강조하였을 때 현재 그 사회의 경제발전이 더 높다($r=.53$)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어교과서의 내용분석과 관련된 연구로는 크게 우리 나라 국어교과서의 내용을 언어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분석한 연구, 우리 나라 국어교과서와 타국(주로 중국, 일본)의 국어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한 연구 그리고 북한의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우리 나라 국어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어휘나 문법 등 주로 언어사용의 기능적인 측면과 관련된 연구(김상순, 1995; 김경선, 1998), 교과과정의 구성이나 체제와 관련된 연구(김경자 외, 2001; 김정원, 1998; 서혁, 2000; 최명환, 1995), 글의 형태나 내용에 관련된 연구(강현국, 1998; 고재석, 1996; 박소연, 정대련, 1998; 신상철, 1996; 이신성, 1993; 정원희, 1994)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언어학적 요소, 교과내용이나 체제,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상, 가치관 등 다양한 주

체를 다루고 있었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어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한일 국민학교 국어교과서 비교연구(심은정, 1992), 한중 중학교 국어과 교육 비교연구(임춘매, 1992), 중국 조선족과 한국의 초등교과서 비교분석연구(정확실·조연순·이성은, 1992) 등이 있을 뿐이다. 정확실 외(1992)는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 사회, 수학, 자연 교과서를 우리 나라 교과서와 비교, 분석한 결과 조선족 교과서에서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이념교육의 내용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조선족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특히 북한의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동일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이념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조선족도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어교과서와 관련하여서는 어휘 연구(민병곤, 1999), 사상 및 가치관 연구(김현진, 1993; 박성희, 1994), 교과서 체제 및 글의 내용 관련 연구(김인전, 1998; 오영식, 1991a, b; 정춘자, 1992; 한철우, 1998) 등이 있는데, 특히 박성희(1994)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국어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절대적 자기집단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변에 한족이 밀려들어 오고 있고 조선족 사회에 커다란 인구 변화가 일고 있는 이때 조선족 아동에게 민족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모국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 등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모국어는 매우 상이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조선족 아동이 학교에서 모국어를 통하여 교육받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교육과 가치관 등의 내용이 가장 풍부한 모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선족의 조선어교육은 조선족 아동의 언어교육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가치덕목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족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가치덕목이 한국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조선족의 현실을 이해하고 민족 공동체를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해 주는 바가 클 것이다.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환경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크게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및 거시체계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인과 동일한 민족이지만 중국이라는 거시체계에 놓여 있으므로 상이한 환경을 지니는 조선족 아동에게 이러한 체계에 대한 강조가 한국의 아동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 조선족의 경우 어떠한 체계를 강조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과 가치덕목을 이러한 체계 범주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 분석하여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지금까지 국어교과서 내용분석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 조선족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소학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사용되는 조선어문 교과서를 대상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변의 소학교 1학년, 소학교 4학년, 그리고 초급중학교 1학년 사용하고 있는 조선족 조선어문 교과서(이하 조선어문 교과서)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국어 교과서(이하 국어 교과서)의 내용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조선어문 교과서는 국어교과서에 비해 글의 종류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조선어문 교과서는 국어교과서에 비해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에 속하는 등장인물의 언급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국어 교과서에 비해 개인생활영역, 가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및 국가생활영역에서 언급되는 가치덕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교과서는 중국 연변지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선족 교과서 중 조선어문 6권 즉, 소학교 1학년용(1-2권)과 4학년용(7-8권), 초급중학교 1학년용(1-2권)과 우리나라 제 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발간된 국어과 교과서 중 읽기교과서 6권 즉, 초등학교 1학년용(1-1, 1-2)과 4학년용(4-1, 4-2), 중학교 1학년용(1-1, 1-2) 등 총 12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서를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아동의 연령 범위는 만 6세부터 12세에 해당하였다.

책의 구성상 중국의 조선어문 교과서의 경우에 읽기, 말하기와 듣기, 쓰기 영역이 한 권의 책으로 통합되어 있는 반면에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들 영역이 2-3권의 책으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어문 교과서에서는 읽기 영역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조선어문과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글의 종류, 등장인물의 범주, 글의 주제(가치

덕목)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세부적인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글의 종류 분석

조선어문과 국어교과서에 실린 글의 종류는 서울교육대학 국어과 교육 교재편찬위원회(1991)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9개로 나누었다. 각 국가의 교과서별로 글의 종류별 분포와 분포상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 ① 그림이나 사진, 만화가 함께 제공되는 짧은 글(그림일기 등)
- ② 생활의 글(일기, 생활문, 수필 등)
- ③ 감상의 글(기행, 감상문 등)
- ④ 격식이 담긴 글(편지, 보고서, 서식, 공문)
- ⑤ 기록문(관찰, 견학을 포함하는 기록문, 보도문, 기사, 발표문 등)
- ⑥ 설명/논설문
- ⑦ 상상의 글(동화, 전기, 소설)
- ⑧ 시류(동시, 동요, 민요, 시조, 현대시 등)
- ⑨ 극본(극화, 시나리오, 방송 등)

2) 등장인물의 분석

<연구문제 2>를 위해 앞에 제시한 9가지 글의 종류 중 등장인물이 분명한 생활의 글(일기,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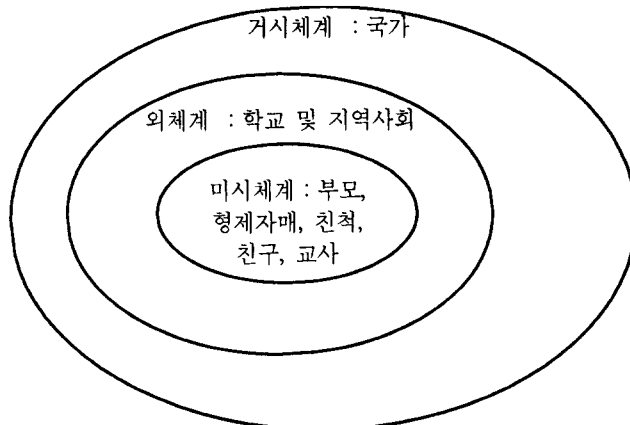
활문, 수필)과 상상의 글(동화, 소설, 전기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해당 교과서에서 생활의 글과 상상의 글이 선정되면 각 글을 문단으로 나누었다. 문단은 외형상 줄이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대화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나누지 않았다. 그리고 각 문단의 등장인물을 Bronfenbrenner(1979)의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4가지 체계 중 중간체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체계중 하나에 속하는지 분류하였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되는데 비교적 짧은 문단의 내용분석을 통해서는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교사는 미시체계에 속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는 외체계, 그리고 국가는 거시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간의 관계는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각 문단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 체계에 속하는 다음의 9개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류하여 각 범주에 속하는 빈도를 산출하였다. 우선 등장인물을 자기 자신,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교사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로 분류하되 인물이 이들 8개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을 때는 기타로 분

류함으로써 총 9개 범주를 사용하였다. 한 문단에서 여러 명의 인물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Bronfenbrenner의 체계이론에서 보다 더 포괄적인 체계에 속하는 인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과 부모가 함께 나오는 경우에 부모가 언급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모든 문단에서 자기 자신은 다른 인물과 관련지어 기본 요소(default)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범주별 분석은 아동학 전공자 4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내용 분석을 위해 2인 1조가 되어 국어교과서와 조선어문 교과서 자료를 각각 분석하였다. 국어교과서에서는 각 범주에 대한 일치도가 90% 이상이 될 때까지 범주별 분류 훈련을 가졌다. 1차에서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의 일치도는 각각 81%, 82%, 91%, 92%로 나타났다. 조선어문 교과서의 경우에는 3차례에 걸쳐 2인간 일치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제(가치 덕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이 다른 조선족과 한국사회에서 강조하는 가치덕목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가치덕목, 특히 어린 아동



〈그림 1〉 미시체계, 외체계, 거시체계와의 관계

〈표 1〉 생활영역별 가치덕목

생활영역 범주	가 치 덕 목
개인생활영역	자주/자립, 인내, 지혜/슬기, 정직, 성실/근면, 근검절약, 면학, 자기반성, 절제, 실천의지, 생명존중, 개성, 자긍심
가정생활영역	자식에 대한 사랑(자애), 부모에 대한 사랑(효), 형제/자매나 친족간의 사랑(우애, 화목)
사회생활영역	예절, 협동, 책임감, 관용, 겸손, 우정, 경애, 준법정신(법과 규칙준수), 정의, 타인배려(친절과 양보), 환경보호, 공익봉사
국가생활영역	충성심, 희생정신, 애국심, 박애정신

의 가치덕목이나 중국 조선족의 가치 덕목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박성희(1994)는 가치관을 개인생활영역, 가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그리고 국가생활영역으로 나누어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3>을 위해 주제분석이 가능한 생활의 글과 상상의 글을 중심으로 교과서의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치나 덕목)를 이러한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가치나 덕목의 세부 범주는 우리 나라의 제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체계와 박성희(1994)의 연구를 참조하여 <표 1>과 같이 분류하였다.

개인생활영역의 주요 가치덕목으로는 개인으로서의 행복한 삶과 자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포함되며, 가정생활영역에서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 및 친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가치덕목들이 포함된다. 사회생활영역에는 이웃, 학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전체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가치덕목이 포함되며, 국가생활영역에서는 국가애, 민족애, 인류애와 관련하여 국가와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치덕목을 포함시켰다.

조선어문에 포함된 61편의 글과 국어 교과서에 포함된 107편의 글 등 총 167편에 대해 가치덕목을 추출해 내고 그것을 생활영역별로 분류하였다. 양국의 교과서에 대한 주제분석에서 채점시간 신뢰도를 내기 위해서 2인 1조의 방식으로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어문의 경우 그 내용이 생소하였음에도 조선어문에 포함된 61편의 모든 글의 가치덕목 분류시 채점자 2인의 일치도는 98.4%이었으며, 국어 교과서에 포함된 107편의 글에 대한 일치도는 91.6%로 나타났다.

Ⅲ. 결 과

1. 글의 종류 분석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어문 교과서에서는 생활의 글과 상상의 글이 모두 61편으로

5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표 2>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22.9%), 상상의 글(29.2%), 시(22.5%)에 속하는 글의 종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생활

의 글(16.1%)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일기 류는 조선어문에서는 소학교 1학년의 경우에만 찾아볼 수 있으며, 국어교과서에서도 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나타난다. 즉 조선어문에서는 글의 종류가 몇 가지로 편중되어 나타나는 반면에 국어교과서에서는 글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어문 교과서에서는 일기나 편지를 포함한 격식이 담긴 글이 단 한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본 류는 한편에 불과했다. 이러한 글의 종류의 분포에 있어서 양 교과서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생활의 글, 상상의 글, 시, 여타 종류의 글 등 4집단으로 나누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학 1학년 교과서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29, p < .1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어문 교과서

에서는 생활의 글과 상상의 글이 모두 61편으로 52.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표 3>의 국어교과서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22.9%), 상상의 글(29.2%), 시(22.5%)에 속하는 글의 종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생활의 글(16.1%)이 많이 나타난다. 그림일기 류는 조선어문에서는 소학교 1학년의 경우에만 찾아볼 수 있으며, 국어교과서에서도 주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 나타난다. 즉 조선어문에서는 글의 종류가 몇 가지로 편중되어 나타나는 반면에 국어교과서에서는 글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어문 교과서에서는 일기나 편지를 포함한 격식이 담긴 글이 단 한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극본 류는 한편에 불과했다. 이러한 글의 종류의 분포에 있어서 양 교과서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표 2> 학년별 조선어문 교과서에 담긴 글의 종류 분포

N(%)

글의 종류	소학교 1학년	소학교 4학년	초급중학교 1학년	전 체
그림일기 류	19(39.6)	0(0.0)	0(0.0)	19(16.2)
생활의 글	일 기	0(0.0)	0(0.0)	0(0.0)
	생활문, 수필	8(16.7)	5(14.3)	3(8.8)
	소 계	8(16.7)	5(14.3)	3(8.8)
감상의 글(기행문, 감상문)	0(0.0)	2(5.7)	3(8.8)	5(4.2)
형식적 글(편지, 보고, 공문 등)	0(0.0)	0(0.0)	0(0.0)	0(0.0)
기록문(관찰, 견학문, 기록, 보도, 회의록, 기사, 발표문)	0(0.0)	2(5.7)	1(3.0)	3(2.6)
설명, 논설문	0(0.0)	6(17.1)	3(8.8)	9(7.7)
상상의 글	동 화	11(22.9)	1(2.9)	3(8.8)
	전기문	3(6.2)	1(2.9)	3(8.8)
	소 설	2(4.2)	10(28.5)	10(29.4)
	설화, 신화	0(0.0)	0(0.0)	1(3.0)
	소 계	16(33.3)	12(34.3)	17 (50.0)
시 류(동시, 동요, 현대시, 시조 고전시가)	5(10.4)	7(20.0)	7(20.6)	19(16.2)
극본(시나리오, 방송, 극화)	0(0.0)	1(2.9)	0(0.0)	1(0.9)
전 체	48(100.0)	35(100.0)	34(100.0)	117(100.0)

〈표 3〉 학년별 국어 교과서에 담긴 글의 종류 분포

N(%)

글의 종류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전체
그림일기 류		4(6.9)	0(0.0)	1(1.1)	5(2.1)
생활의 글	일기	0(0.0)	0(0.0)	1(1.1)	1(0.4)
	생활문, 수필	13(22.4)	9(10.3)	15(16.5)	37(15.7)
	소계	13(22.4)	9(10.3)	16(17.6)	38(16.1)
감상의 글(기행문, 감상문)		0(0.0)	0(0.0)	2(2.2)	2(0.8)
격식이 담긴 글(편지, 보고, 서식, 공문 등)		3(5.2)	4(4.6)	3(3.3)	10(4.3)
기록문(관찰, 견학문, 기록, 보도, 회의록, 기사, 발표문)		0(0.0)	0(0.0)	2(2.2)	2(0.8)
설명, 논설문		8(13.8)	25(28.7)	21(23.1)	54(22.9)
상상의 글	동 화	17(29.3)	21(24.1)	5(5.5)	43(18.2)
	전기문	1(1.7)	2(2.3)	3(3.3)	6(2.5)
	소 설	0(0.0)	3(3.4)	12(13.2)	15(6.4)
	설화, 신화	0(0.0)	0(0.0)	5(5.5)	5(2.1)
	소 계	18(31.0)	26(29.9)	25(27.5)	69(29.2)
시 류(동시, 동요, 현대시, 시조 고전시가)		11(19.0)	22(25.3)	20(21.9)	53(22.5)
극본(시나리오, 방송, 극화)		1(1.7)	1(1.2)	1(1.1)	3(1.3)
전 체		58(100.0)	87(100.0)	91(100.0)	236(100.0)

생활의 글, 상상의 글, 시, 여타 종류의 글 등 4집단으로 나누어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학 1학년 교과서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29, p < .10$).

<표 2>, <표 3>에서 각 학년별 분포의 차이를 보면, 조선어문의 경우 생활의 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각 학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등장 인물 분석결과

조선어문과 국어교과서의 생활의 글과 상상의 글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인물을 문단별로 기타를 포함한 9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표4>와 <표5>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4〉 조선어문 교과서의 등장인물분포 N(%)

범 주	소학교 1학년	소학교 4학년	초급중학교 1학년	전 체
자기자신	71(26.3)	53(18.6)	97(19.7)	221(21.1)
부 모	18(6.7)	25(8.8)	24(4.9)	67(6.4)
형제, 자매	12(4.4)	21(7.4)	37(7.5)	70(6.7)
친 적	9(3.3)	12(4.2)	18(3.7)	39(3.7)
친 구	67(24.8)	23(8.1)	25(5.1)	115(11.0)
교 사	3(1.1)	5(1.8)	22(4.5)	30(2.9)
학 교, 지역사회	62(23.0)	118(41.3)	213(43.2)	393(37.5)
국 가	7(2.6)	26(9.1)	17(3.5)	50(4.8)
기 타	21(7.8)	2(0.7)	39(7.9)	62(5.9)
전 체	270(100.0)	285(100.0)	492(100.0)	1047(100.0)

<표4>와 <표5>에서 보는 것처럼 양 교과서에서 모두 학교 및 지역사회로 분류되는 등장인물의 비율이 전체의 37.5%, 29.7%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전체의 21.1%, 25.5%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에 대한 분류가 전체의 11%, 20%로 높게 나타났다.

양 교과서에서 등장인물 분포의 차이를 보면, 조선어문의 경우에 부모, 형제/자매, 친척, 교사, 국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전체의 약 4-7%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어 교과서에서는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체의 13.5%를 차지하고, 나머지 범주에 대한 분류는 전체의 약 1-5%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가 양 교과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보기 위해 0이나 5이하의 빈도를 보이는 친척의 범주를 기타와 함께 묶어 8개 범주간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학년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등장인물 범주별 분포에 있어서 조선족 소학 1학년과

한국의 초등 1학년($\chi^2 = 13.60, p < .06$), 조선족 소학 4학년과 한국의 초등 4학년($\chi^2 = 108.30, p < .01$), 조선족 중학 1학년과 한국의 중학 1학년($\chi^2 = 148.14, p < .01$) 교과서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어교과서의 경우 자기자신, 친구, 부모 등 미시체계 중 비교적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많이 다루고 있는 반면 조선어문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국가의 비중이 높았다.

각 학년별 분포를 보면, 조선어문 교과서의 경우 소학교 1학년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전체의 26.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의 비율이 전체의 24.8%로 높았다. 소학교 4학년과 초급중학교 1학년에서는 모두 학교 및 지역사회로 분류되는 비율이 각각 전체의 41.3%, 4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류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18.6%, 19.7%로 나타났다. 국가로 분류되는 비율은 소학교 4학년에서 전체의 9.1%이며, 소학교 1학년과 초급중학교 1학년에서는 전체의 약 2-3%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학년별 분포의 차이는 χ^2 검정결과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 = 130.86, p < .01$).

반면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초등 1학년에서 친구에 대한 언급이 전체의 3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자기 자신(26.2%), 학교 및 지역사회(19.1%)의 순서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초등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는 양 교과서에서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향과 일치하였다. 즉 학교 및 지역사회(31.7%, 31.1%), 자기 자신(27.5%, 24.1%), 친구(19.2%, 16.7%)의 순서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부모범주에 대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언급이 많아짐(7.1%, 13.5%, 15.2%)을 알 수 있었다. 국어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학년별

<표 5> 국어 교과서의 등장인물분포 N(%)

분 류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전체
자기자신	78(26.2)	208(27.5)	289(24.1)	575(25.5)
부 모	21(7.1)	102(13.5)	182(15.2)	305(13.5)
형제, 자매	13(4.4)	8(1.1)	77(6.4)	98(4.3)
친 척	11(3.7)	0(0.0)	21(1.7)	32(1.4)
친 구	104(34.9)	145(19.2)	201(16.7)	450(20.0)
교 사	4(1.3)	30(4.0)	21(1.7)	55(2.4)
학 교, 지역사회	57(19.1)	240(31.7)	372(31.1)	669(29.7)
국 가	7(2.3)	19(2.5)	27(2.2)	53(2.3)
기 타	3(1.0)	4(0.5)	12(1.0)	19(0.9)
전 체	298(100.0)	756(100.0)	1202(100.0)	2256(100.0)

분포의 차이는 χ^2 검정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 = 127.54, p < .01$).

3. 주제(가치덕목)분석결과

<표 6> 조선어문 교과서 가치덕목영역분포 N(%)

구 분	소학교 1학년	소학교 4학년	초급중 1학년	계
개인생활영역	13(54.1)	6(35.3)	4(20.0)	23(37.7)
가정생활영역	1(4.2)	0(0.0)	0(0.0)	1(1.7)
사회생활영역	9(37.5)	7(41.2)	9(45.0)	25(41.0)
국가생활영역	0(0.0)	4(23.5)	6(31.6)	10(16.7)
기 타	1(4.2)	0(0.0)	1(5.3)	2(3.3)
계	24(100.0)	17(100.0)	20(100.0)	61(100.0)

양 교과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치덕목을 생활영역별로 나누어 그 분포를 <표6>과 <표7>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어문 교과서에서는 사회생활영역에서 강조하는 가치덕목이 전체의 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생활영역에서 강조하는 가치덕목의 비율이 전체의 37.7%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국어교과서에서는 개인생활영역의 가치덕목이 전체의 4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생활영역(33.6%), 가정생활영역(11.2%), 국가생활 영역(5.6%)의 순서대로 가치덕목의 비율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양국 교과서에 나타나는 가치덕목의 세부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개인생활영역에서 조선어문의 경우에는 정직, 성실/근면, 절제 등 집단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국어교과서에서는 생명존중, 개성, 자긍심 등의 개인주의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이

<표 7> 국어 교과서 가치덕목영역분포 N(%)

구 분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계
개인생활영역	16(51.6)	16(45.7)	16(39.0)	48(44.9)
가정생활영역	2(6.5)	5(14.3)	5(12.2)	12(11.2)
사회생활영역	11(35.5)	11(31.4)	14(34.1)	36(33.6)
국가생활영역	1(3.2)	3(8.6)	2(4.9)	6(5.6)
기 타	1(3.2)	0(0.0)	4(9.8)	5(4.7)
계	31(100.0)	35(100.0)	41(100.0)	107(100.0)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정생활영역에서 보면 조선어문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다루는 글이 단 한편 등장하고 있으나 국어교과서에서는 형제, 자매나 친족간의 사랑 즉,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형제애, 가족애, 친족간의 우애 등을 주제로 하는 글이 많았다. 사회생활영역에서는 양국 교과서에서 모두 타인배려 즉, 타인에 대한 친절과 양보를 강조하고 있었으나, 그 이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조선어문에서는 규칙준수와 공익봉사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조선어문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강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국가생활영역에서는 모두 국가애를 강조하고 있었으나 조선어문의 경우에는 특히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영역별 가치덕목의 분포에 있어서 양국의 교과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영역, 그리고 사회생활, 국가생활 및 기타 영역으로 이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국의 중1 교과서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chi^2 = 5.42, p < .05$), 조선족 소학 4학년과 한국의 초등 4학년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 = 2.80, p < .10$).

조선어문 교과서의 가치덕목을 각 학년별로 살펴보면, 개인생활영역에서의 가치덕목의 비율은 각 학년별로 전체의 54.1%, 35.3%, 20%로 나타남으로써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각 학년별 사회생활영역에서의 비율은 전체의 37.5%, 41.2%, 45%이며, 국가생활영역에서의 비율은 전체의 0%, 23.5%, 31.6%로 이들 영역에서의 가치덕목의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생활영역의 가치덕목은 전 학년을 통해 단 한편의 글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영역별 가치덕목에 있어서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개인생활과 가정생활영역, 사회

생활, 국가생활 및 기타 영역으로 이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미시체계, 외체계 및 거시체계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이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6.88, p < .05$).

국어 교과서에서 가치덕목의 학년별 변화를 보면, 개인생활영역의 가치덕목의 비율은 전체의 51.6%, 45.7%, 39%로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타 영역에서의 가치덕목의 비율은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회생활영역의 가치덕목은 각 학년에서 거의 일정한 비율(35.5%, 31.4%, 34.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년별 분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IV. 결론 및 논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내에 속하면서도 한반도의 변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남북한으로부터 유입된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비교적 잘 보존시키고 있어 언어학과 문화적 측면에서 독특한 생태학적 상태에 있다. 이는 조선족 학교는 기초단계에서는 조선어로 강의해야 하며, 그 이후 단계에서는 한어로도 교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허창선, 이광호, 1995) 소수민족 보호정책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중국문화에 대한 유입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조선어교육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조선족 아동에 대한 조선어교육은 아동의 언어교육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치관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인접한 곳이지만 중국이

라는 정치, 사회문화적인 체제에 있는 조선족 아동의 조선어 교육의 내용을 글의 종류와 인적 대상, 그리고 가치덕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특히 양국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향후 중국동포들의 교육개혁이나 이중언어 교육정책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본국에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의 종류에 대한 분석결과 조선어문에서는 생활의 글과 상상의 글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나라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 상상의 글, 시에 속하는

글의 종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의 조선어문에서는 글의 종류가 몇 가지로 편중되어 나타나는 반면에 우리 나라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글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조선족 교과서에서 글의 종류가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실 외(1992)의 연구와 일치된다. 이들의 연구에서도 글의 유형에서 동화와 전기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일기나 편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조선족의 생활에서는 일기나 편지와 같은 개인적인 글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각 학년별 분포의 차이를 보면, 조선어문의 경우 생활의 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도 각 학년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조선어문과 국어교과서의 생활의 글과 상상의 글을 중심으로 문단별로 등장인물을 9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 교과서에서 모두 학교 및 지역사회로 분류되는 등장인물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친구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족 교과서의 경우 자기 자신 및 친구에 대한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조선족 교과서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시체계보다는 외 체계에 대한 강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라는 거시 체계에 대한 비율은 전체의 4.8%로 나타나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2.4%)보다는 높았다.

셋째, 양 교과서에서 각 생활영역별로 가치덕목을 비교해 본 결과 양자 모두 사회생활영역과 개인생활영역의 가치덕목의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족 교과서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인생활영역에서의 가치덕목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생활영역과 국가생활에서의 가치덕목의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어문에서 가정생활영역에서의 가치덕목의 비율이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의 교과서에서는 개인이나 가정과 같은 미시체계보다는 사회나 국가와 같은 외체계 및 거시체계 등의 보다 확대된 환경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족 교과서는 자편, 번역, 편역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편찬되는데, 조선어문은 조선족이 자체적으로 편찬한 자편의 기준에 의해 발행된 교과서로서(정확실 외, 1992)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과는 상이한 사회적인 가치관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이러한 차이는 양국에서 사용하는 우리말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분명히 확인되었다. 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범주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그리고 각 생활영역별로 강조되고 있는 가치덕목의 수와 비율을 분석했을 때에도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어문과 읽기교과서에서 발췌된 총 167편의 글에서 강조하는 가치덕목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족 교과서에서는 성실, 근면하며 남을 도우며 국가에 충성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인간상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교과서에서는 개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가족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사회생활에서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인간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족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며, 한국의 교과서에서 강조되는 가치는 개방적인 민주주의 체제하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조선족 아동의 민족 정체감 보존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족 정체감 보존을 위해 구심점이 되는 것은 우리말 학습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조선족 청소년의 조선어 문맹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교육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는 소수민족 우대정책 하에 조선족 교육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민족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족 자체 내에서 민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선족 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에 민족문화를 보존,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내용의 선정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교과내용 선정 시 아동에게 수업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족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한다. 우리 나라 역사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기가 어렵다면 조선어문 교과서에 우리 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모택동, 레닌, 주은래 등 중국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소개되어 있으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등 한국의 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둘째, 본국에서는 조선족 아동의 민족정체감 보존을 위한 교육지원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교육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선족 자체 내의 노력뿐만 아니라 본국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조선족 교육의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는 수준 높은 조선족 교사의 수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조선어문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본국에서의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거나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정부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많은 양질의 교사를 수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 민간차원에서 조선족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수한 조선족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줄 필요가 있다. 중국 조선족의 미래는 우수한 인재양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서의 조선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발굴과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소학교단계부터 조선족 아동과 한국아동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현재 고등교육수준에서의 인적 교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린 아동들을 위한 교류의 기회는 미미한 실정이다.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들간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조선족 아동에게는 모국어학습을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아동에게는 중국의 조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본국에서 이들 아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조선족의 민족 정체감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의 아동과 조선족 아동에게 강조되고 있는 가치덕목의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향후 문헌연구를 넘어 조선족 아동들이 실제로 어떠한 가치덕목을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조선족아동의 민족정체감 보존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 관련 법안 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본국에서 중국 조선족 아동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을 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보유(1999). 중국 조선족의 모국어 생활과 모국어 교육. *전남대 현대사회과학연구*, 10, 29-51.
- 강영덕(1999). 연변 조선족 연구와 교육문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논문집*, 14(1), 65-73.
- 강현국(1998). 초등학교 국어과 읽기 교과서의 동시 작품 형태 연구. *대구교대논문집*, 33(6), 91-100.
- 고재석(1996).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전통의식과 그 수용 양상 : 해방공간에서 1970년대까지. *동국어문학*, 8(12), 35-61.
- 김강일(1994). 연변 조선족 문화의 보존과 전망. *한국민족학회보*, 4(1), 281-294.
- 김경선(1998). 초등학교 2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의 어휘조사. *서울교대초등국어교육*, 8(2), 151-188.
- 김경자, 유솔아, 유은경(2001). 지식기반사회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7차 초등 국어교과서 분석-초등 3학년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32(1), 17-39.
- 김상순(1995).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실태 조사 연구 : 3학년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건국대교육논총*, 25(12), 75-108.
- 김인전(1998). 북한 인민학교 국어, 수학, 자연 교과서 분석. *초등교육연구*, 12(1), 87-115.
- 김정원(1998).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 본 초등학교 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교육*, 25(1), 316-344.
- 김현진(1993).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 정치사상적 메시지와 그 예문을 중심으로. *대구교대국어교육론지*, 19(2), 21-38.
- 민병곤(1999). 북한 고등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9(12), 455-500.
- 박금혜(2000). 중국조선족교육 그 현황과 과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3(1), 98-120.
- 박성희(1994). 교과서 분석에 의한 북한 청소년의 가치관연구. *통일문제연구*, 22(12), 188-215.
- 박소연, 정대련(1998).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의 철학 교육적 접근. *아동학회지*, 19(27), 201-215.
- 박영순(1990). 이중언어 이론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제, *이중언어학회*, 6(11), 135-167.
- 박태수(2002). 중국 아동교육의 발전전망과 조선족 아동교육의 개혁. *21세기를 열 아동교육 학술토론회 자료집*, 27-46.
- 박태형(1995). 중국 조선족학교에서의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학회지*, 12, 401-405.
- 서울교육대학 국어과교육 교재편찬위원회(1991). *국어과 교과교육론 : 국어과 교수학습지도의 이론과 방법론*. 서울 : 교학연구사, 264-265.
- 서혁(2000). 제7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2학년 실험용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16(3), 161-186.
- 신상철(1996). 중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담긴 문학작품의 분석 연구(1). *경남대교육이론과실천*, 6(11),

171-196.

- 심은정(1992). 한·일 국민학교 국어교과서 비교. *동덕여대동일어문연구*, 7(2), 61-77.
- 오영식(1991a). 북한초등교육의 실태와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의 분석. *충북교육*, 102(9), 92-97.
- 오영식(1991b). 북한초등교육의 실태와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의 분석2. *충북교육*, 103(12), 86-92.
- 원영미(1987). 중공·소련의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논문집*, 23, 149-182.
- 이덕춘(1999).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 및 발전추세 그리고 그 문제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 논문집*, 8(1), 11-25.
- 이신성(1993).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린 형제미담과 감호전설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9(12), 185-263.
- 이종목(1999). 중국 조선족의 교육현황과 문제, *현대사회과학연구*, 10(1), 1-27.
- 임채완, 김경학(2002).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0(1), 247-273.
- 임춘매(1992). 한·중 양국의 중학교 국어과 교육 비교 연구. *서울사대국어교육연구*, 47(8), 91-191.
- 정원희(1994). 국어과 전기문 분석 및 지도법 연구 : 국민학교 3·4·5·6학년 국어 읽기 교과서 중심으로. *대구교대국어교육논지*, 20(9), 1-28.
- 정춘자(1992).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 대한 고찰. *교육경북*, 101(12), 66-76.
- 정확실, 조연순, 이성은(1992). 중국 조선족과 한국의 초등교과서 비교분석연구-조선어, 사회, 수학, 자연 교과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6, 5-44.
- 조복희, 이재연, 윤종희(1993). 연변지역 조선족의 가족생활 및 육아방식의 실태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1(1), 35-44.
- 최기호(1990). 중국에서의 국어 정책에 대한 연구 :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지*, 7, 30-49.
- 최명환(1995).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 : 문장 기술의 준거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11(12), 269-293.
- 최우길(1998). 중국 조선족 사회와 교육의 변화.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123-150.
- 한철우(1998). 북한 국어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한국교원대한국어문교육*, 7(5), 313-343.
- 허청선, 이광호(1995).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의 발전특성고 위기에 대한 재고찰. *한국청소년연구*, 21, 60-80.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ess.
- McClelland, D. C.(1961). *The achieving society*. New York : Free Press.